

대리출근·음주운전... 서귀포시 복무 기강 ‘도마’

도감사위, 휴일 초과수당 부정 지급 감사 중 진술 확보
대리출근·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정적 복무 실태 포함
“구체적 위반 여부 확인 어려워”... 복무실태 점검 요구

휴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에 조직 내 대리출근, 부정적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장시간 이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서귀포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9만5190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훈계와 함께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세 차례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해 시간외근무를 등록한 뒤, 개인 용무나 식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빼지 않은 채 수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1월 30일과 12월 7일에는 각

각 4시간씩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봤고, 12월 14일에는 식사 시간 1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A씨를 훈계조치하고 부정수령한 수당과 가산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서 내 복무 실태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정적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장시간 이석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정적인 복무 운영 실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복무위반 여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등 복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규정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이를 실제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소속 공무원과 부서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오보성기자

제주 해상에 ‘주의보’

태풍 ‘바비’ 간접 영향

북상중인 대형 태풍 ‘바비’로 인해 제주 해상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에 보제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이달 10일 오후부터 제주 연안에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이동중인 제9호 태풍 ‘바비’는 11일 새벽 대만 해상에 접근한 뒤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경은 “10~12일 사흘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제주 바다 낚시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와 근접한 갯바위, 방파제 등 사고 위험구역으로의 출입을 조심하고 가급적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귀포해경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 누리집 등에 위험 예보 발령 사항을 게시하고,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과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신설 중단해야”

제주에 300MW 규모 추진 관련

9일 서명운동 참가자들 건의

제주지역에서 300MW 규모의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이 추진중인 가운데 제주도민 1700여 명이 제주도에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달간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독립한 범도민 서명 운동에 이의 심각성을 공감한 도민 1721명이 참여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주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제주시 삼양동과 구좌읍 동복리에 150MW급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RE

100(재생에너지 100%)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제주에서는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연간 110만t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2035년 탄소중립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외치는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0일 금요일 음 5월 26일 (3월)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60%	성 산	20%
30%	고 산	20%
6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5/33°C
모레	맑음	25/32°C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구름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C, 낮 최고기온은 30-31°C로 예상된다. 서귀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12-15시)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수 있겠다.

해돋이 05:32	달뜨기 00:58
해질 19:47	달지기 15:30
물때 만조 05:50	간조 00:36
19:44	12:49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제주 온다

이달 15일~9월 13일 제주교육박물관서 순회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의 역사를 담은 ‘기억상자’가 제주에 온다. 이달 15일부터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순회전시다.

제주교육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라는 이름으로 준비됐다. 기념관의 상설 전시 내용을 4개의 이동형 기억상자에 담아 제주에 옮겨왔다.

첫 번째 기억상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공화정의 시작’을 주제로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펼쳐낸다. 두 번째 기억상자는 외교부터 군사, 의열투쟁, 교육, 행정까지 임시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나머지 기억상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신 위에 세워졌음을 전한다.

박물관에선 ‘제주인의 항일운동

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지역전시도 만날 수 있다. 제주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문덕홍 지사(1902~1949)를 비롯해 조천만세운동, 제주 군자금 모금 운동 사건이 조명된다.

전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교육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과 로비전시실에서 열린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전시와 연계한 관람객 이벤트가 준비된다.

김지은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